



배터리서 자율주행·공유차까지… 모빌리티 혁신 주도

산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5G 상용화를 통한 초연결 사회와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고, 공유경제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모빌리티 사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다. 기업들은 각자 갖고 있던 모빌리티 역량에 힘을 싣는 동시에,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모빌리티 준비 현황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미래 먹거리 모빌리티에서 찾는다

① SK그룹

SK그룹은 일찌감치 미래 모빌리티를 5대 신사업분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공언해왔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부문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SK는 이미 산업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배터리 등 전장과 자율주행 등 기술,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공급에서 공유차와 주차장 플랫폼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이어왔다.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하는 계열사는 단연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지난해 MWC와 올해 CES, 서울모터쇼에까지 기술을 내놓을 만큼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티맵은 SK 자율주행 기술 핵심이다. 자율주행차를 제어할 수 있는데다, 4단계 이상 자율주행차에서는 초정밀 지도와 함께 도로 정보 등 빅데이터도 필수적이다. 티맵은 일찌감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앞세워, SK 모빌리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티맵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바로 티맵 택시다. SK텔레콤은 카풀 사업 진출 계획이 아직 없다며 선을 그어놨지만, 업계에서는 티맵 택시가 카풀 진출을 위



최태원 SK 회장(가운데)이 19일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김진영 배터리생산 기술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SKT, 자율주행 개발 박차 티맵 택시 등 플랫폼 확대

SK네트웍스, 차량 관리 역할 주유소 가맹점만 2000개 넘어

SK이노 '전기차 배터리 기술' 글로벌로 잇따라 수주 성공

한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SK네트웍스는 실제 차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 차량 경정비 브랜드 스피드메이트 700곳과 SK주유소 직영점 350여곳을 보유 중이다. SK주유소 가맹점만해도 2000개가 넘는다. 전기 충전소와 공유차 스테이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인 셈이다.

차량을 유통하는 데에도 SK네트웍스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 SK렌터카

에 AJ렌터카를 인수하면서 렌터카 업계 양강으로 부상하면서다. AJ렌터카는 전국에 180여개 지점에 주차 공간과 영업망까지 갖추고 있어 전국 사업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계열사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소유하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3월 기준 누적 430GWh를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투자해 생산능력을 2022년까지 60GWh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보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 19일에는 서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5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한화·CJ 등 아시아나 인수 '눈치작전'

채권단 5000억 지원안 이번주 발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주 중 아시아나항공에 추가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시점에 맞춰 재무 구조 업무협약(MOU)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매각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인수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은 시큰둥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기업들의 반응이 인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눈치작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내 KD 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5일 전에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금호그룹과의 재

무구조 업무협약(MOU)를 한 달 연장한 시점인 5월 6일을 놔두고 25일 이전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뤄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25일 이전에 추가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그룹이 올해 갚아야 할 채무는 약 1조3000억원이다. 특히 금호그룹은 오는 25일 만기인 6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현 신용등급(BBB-)이 소멸돼 1조원이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조기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요청한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00억원의 영구채 발행과 2000억원 이상의 한도대출(스탠바이론)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권단 경영정상화 지원 공감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수정 자구계획을 제출한 이후 채권단 사이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모두 공감한 상태"라며 "자금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MOU가 추후 이뤄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MOU 관련 협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MOU를 통해 지원과 조건이 확정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공개 매각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무한신뢰를 보이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함께 인수 합병 과정 시 불거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항도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사회

**메트로신문이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경력직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지난해 3월 국내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metro(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해 3월부터 관공서와 기업 독자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유능한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 17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경력기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법조·증권·부동산·데이터소싱 부문 취재기자

■ 모집내역 : ①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② 모집인원 : 0명

③ 응시자격 : 해당 분야 경력 3~7년 사이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기명기사 3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 2019년 4월 23(화) ~ 5월 9일(목)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26)

metro

결함 논란 '갤럭시 폴드' 中 공개 연기

삼성전자 "출시일정 변동 계획 없어"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중국 공개행사가 연기됐다. 최근 미국서 불거진 갤럭시 폴드의 스크린 결함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당초 삼성전자는 23일 홍콩,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갤럭시 폴드 브리핑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앞서 미국매체들은 삼성전자에서 받은 갤럭시 폴드가 사용 1~2일 만에 스크린 결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주말 동안 미국에 서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받아 본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출시 일정 변동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리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정화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더해 제품 포장 과정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보강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출시 시점을 미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5월 중순 갤럭시 폴드 국내 출시 전 4월 중으로 국내에서도 언론 대상 브리핑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사전 예약과 출시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 변동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 언론 브리핑만 연기된 것"이라며 "샘플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갤럭시 폴드 스페이스 실버.
/삼성전자